



근거이론을 통한 태권도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이법선¹ · 빙원철^{2*}

1. 단국대학교, 교수 2.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요약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격파대회와 관련한 문제점과 현상, 경쟁력 강화방안을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도출하는데 있다.

방법 태권도전공 교수 및 격파대회 관련자 16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으로 이뤄졌고,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59개의 개념과 1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이를 통합한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둘째, 축코딩 단계에서는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격파 경기의 다양화, 격파용품의 규정화, 입상제도의 변화, 심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격파대회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범주로 도출하고 이야기 윤곽을 제시하였다.

결론 격파대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회의 문제점인 현 실태를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격파대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격파대회, 근거이론, 경쟁력 강화

I. 서론

태권도 격파대회는 태권도 한마당을 시작으로 2014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 2015년 용인대학교 총장기 태권도대회, 2016년 백석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 등 각종대회에서 개인전 경기의 하나의 종목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태권도 격파 수련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선수 양성과 대학입시를 위한 격파대회의 협회 인준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2022년 백석대학교 총장배 격파대회가 단일격파대회로 첫 인준되었다. 또한 각종 총장배 대회의 격파종목도 대한태권도협회 인준을 받았고, 공식적인 입상실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태권도 시범이 인기를 끌고, 격파선수들이 증가하면서 격파기술은 다양해지고, 기술의 난이도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회에서 선수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객관

적인 지표의 통일성과 명확한 채점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Kim, 2018; Lee, Jeon, Jung, 2019). 또한 격파대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 기술격파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위한 무리한 기술도전, 보조기구(매트)에 의존하는 기술 등(Lee, 2022; Park, 2021), 격파대회가 기능적 측면에 치우쳐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격파대회가 스포츠로서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올림픽에서 심판의 공정성은 정식종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Park & Park, 2022). 따라서 스포츠로서 태권도 격파 경기의 판정의 공정성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격파 경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개선점이 존재하고(Bang, Ahn, 2022), 이는 격파 경기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며, 이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격파 대회의 증가와 더불어 학문적 영역에서도 격파선수 및 대회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격파

* bing7@knsu.ac.kr

선수의 자기관리와 경쟁불안, 자신감 등 스포츠심리학적 연구(Shin, Kim, Cha, 2021; Cha, Kim, Shin, 2020), 격파 발차기의 관절각, 속도, 높이 등의 운동역학적 연구(Jung, Kim, 2015), 격파대회 타이틀 스폰서십 효과에 관한 산업 경영학적 연구(Yang, Kang, Jeon, 2010), 격파대회의 채점 기준, 심판판정 인식 등 대회운영에 관한 연구(Park, Ban, 2020; Bang, Ahn, 2022) 등이다. 특히 격파대회의 문제점과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로 Shin & Lee(2016)는 질적연구 방법의 귀납적 분석에 따라 경기방식의 다양화(컷오프방식, 토너먼트 방식, 리그전 방식 등), 성인선수 참여확대, 심판자격제도 신설, 경기운영방식과 경기규칙 통일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Shin & Lee(2016)의 선행연구는 본질적 질적연구로서 정식대회 인준 전 태권도 격파대회의 문제를 의미 있게 드러내고 이슈화하였다. 이러한 본질적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감정적 포화'를 추구하여 격파대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Shin & Lee(2016)는 격파대회에 선수로 참여한 시범단원 9명을 선정하여 선수로서의 미시적 관점에서 격파대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고, 격파대회에 대한 다양한 내외부적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격파대회 참여선수, 지도자, 심판, 태권도전공 교수, 대회운영팀 등 내·외부전문가를 통해 공통의 문제 정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통 생성적 지식 창출 과정(Co-generativ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실용적 질적연구 관점에서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으로 실행되었다. 실용적 질적연구로서 근거이론은 관심현상에 대한 설명, 현상발생을 초래한 영향 요인과 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발견하여 이론화를 추구한다. 실용적 질적연구로서 근거이론방법은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에 기초한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구성(해석)주의의 본질적 질적연구(현상학, 내러티브, 문화기술지, 사례연구)와 차별화되어, 기존의 이론적 개념이 포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적 범주의 생성과 복잡한 인과적 과정(causal effect)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yun, 2020).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연구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격파대회 실태에 대한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을 살펴보고,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 경쟁력 강화방안을 분석하여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태권도 시범·격파가 스포츠화 된 격파대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수정·보완되어 제도화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태권도 격파대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격파대회를 직접 경험한 운영팀, 심판, 지도자, 선수, 전공교수 등을 통해 국내 격파대회를 진단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격파대회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국내 격파대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국내 격파대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목적적 표집으로 격파대회 운영팀 2명, 심판 2명, 태권도전공 교수 3명, 대학지도자 3명, 중·고 지도자 3명, 격파선수 3명, 총 16명이다(표 1 참조).

연구참여자 선정은 태권도 격파대회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가, 행정, 지도, 연구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표집하였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격파대회의 문제점 및 경쟁력 강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태권도 격파대회 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참여자와 협의 하에 직장 및 카페에서 진행되었으며, 첫 인터뷰는 1~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1회 이상 추가 인터뷰를 통해 이론적 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연구참여자 16명 모두의 면담내용을 노트북에 전사하였다. 면담 뒤 전사된 내용을 참여자에게 다시 보여주어 불일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구분	연령	전문분야	태권도경력	비고
참여자 A	40대	격파대회 운영팀	25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참여자 B	30대	격파대회 운영팀	30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참여자 C	30대	심판	18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중·고교 지도자 5년
참여자 D	30대	심판	15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대학 지도자 2년
참여자 E	30대	태권도전공 교수	16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세계대회 우승
참여자 F	30대	태권도전공 교수	18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세계 시범대회 우승
참여자 G	40대	태권도전공 교수	20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대학지도자 5년
참여자 H	30대	대학지도자	7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각종 전국대회 입상 및 국가대표 배출
참여자 J	30대	대학지도자	6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각종 전국대회 입상, 국가대표 배출
참여자 K	20대	대학지도자	3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각종 전국대회 입상, 국가대표 배출
참여자 L	30대	중·고교 지도자	9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각종 전국대회 입상
참여자 M	30대	중·고교 지도자	9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각종 전국대회 입상
참여자 N	30대	중·고교 지도자	3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각종 전국대회 입상
참여자 O	20대	격파선수	7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격파대회 입상자
참여자 P	20대	격파선수	7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격파대회 입상자
참여자 Q	20대	격파선수	9년	전 국가대표 시범단, 격파대회 입상자

질문하였다.

자료수집과 동시에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 비교 및 보완, 수정이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예비연구를 통해 핵심질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Bae(2022)와 Park & Lee(2021)의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표 2. 반구조화된 질문지

질문내용
격파대회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격파대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격파대회의 문제점은 왜 발생하나요?
격파대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3. 자료분석 및 진실성 확보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텍스트에 의해 지지되는 정보의 개념을 만들어 범주로 축약하였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발견한 범주를 통해 중심현상을 선택하고,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 조건들, 현상을 설명하는 전략들, 전략을 형성하는 맥락과 중재조건들, 전략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생성하

고, 개념과 핵심범주를 통합하는 이야기 윤곽을 구성하였다(Croswell & Poth, 2016).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 원자료와 분석된 자료를 연구 참여자에게 검토(member checking)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고, 자료분석에 대한 결과를 전문가에게 점검(peer debriefing)하는 단계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에 기반하여 연구의 엄밀성(Rigor)을 따르고자 노력하였다(Guba & Lincoln, 1981)

Ⅲ. 연구결과

1. 개방코딩(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

이 연구의 참여자들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절차를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5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개념들을 통합한 19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위범주를 한층 추상화시킨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3).

2. 축코딩(패러다임 모형 구성)

태권도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 3. 개방코딩 결과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상이한 규정과 기술 난이도 미확립	대회마다 규정의 혼돈 기술 난이도 미 확립 정식대회 인준	시합마다 규정차이, 규정차이로 인한 혼란 난이도의 구분이 어려움, 채점항목 난이도 설정 모호함 격파경기의 통일성, 대한태권도협회 인준필요, 실적관리
맥락적 조건	청소년 격파 선수 증가와 태권도 시범의 저변확대	청소년 격파 선수증가 태권도 시범 저변화 및 확대	격파대회 청소년 참가자 증가, 격파의 인기 대학 시범단 활성화, 겨루기·품새보다 인기
중심현상	격파대회의 실태	기술력에 치중 시범의 의미 상실 종목 구성 및 기술개방 제한 격파용품과 난이도표의 혼란 보조자의 영향	격파 기술 치중, 시범에서의 격파, 국가대표 시범단 선발 종목 다양한 퍼포먼스 미흡, 보조매트의 과사용, 승패의 스포츠화 정형화된 규칙, 흥미 떨어짐, 종목구성 확대, 기술개방 제한 난이도 채점표 수정, B자 격파용품의 무분별 사용, B자 용품의 제한 보조자의 도움, 보조자의 부족
중재적 조건	격파대회의 변화와 제도개혁의 필요성	다양한 요소 채점 공인용품의 부재	완파만을 인정하는 불합리, 기술과 예술성의 다양성 채점, 채점범위 확대 공인용품의 부재, 송판의 강도와 두께, 용품의 인증
작용/상호 작용 전략	엘리트 스포츠화를 통한 새로운 대회 문화	격파경기로 인한 수준향상 응원문화 승리지상주의의 발현	기계화된 격파선수, 격파에만 특화된 격파선수 스포츠 응원문화, 태권도 다운 응원문화 완파 안 된 송판 숨기기, 완파된 척하기, 부정행위하는 팀
결과	격파대회의 경쟁력 강화	경기의 다양화 입상제도 변화 격파 용품의 규정화 심판의 전문성 강화	완파 안 된 송판 숨기기, 완파된 척하기, 부정행위하는 팀 팀 경연의 필요, 이벤트성 경기, 올림픽 종목에 대한 희망, 기록경기 필요 랭킹포인트제, 국가대표급 시범단 선발에 가점부여, 대학 시범단의 랭킹을 가리는 제도 송판 두께의 차별화, 격파용품의 통일 심판의 전문성 강화교육, 비디오판독 도입, 전문직으로서 상임심판

연구참여자로부터 도출한 개념과 범주를 통해 그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Strauss & Corbin(1998)의 패러다임 축에 의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1) 중심현상

축코딩 패러다임에서 중심현상이란 연구현상과 주제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이다. 중심현상을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와 연구문제에 대한 이론을 찾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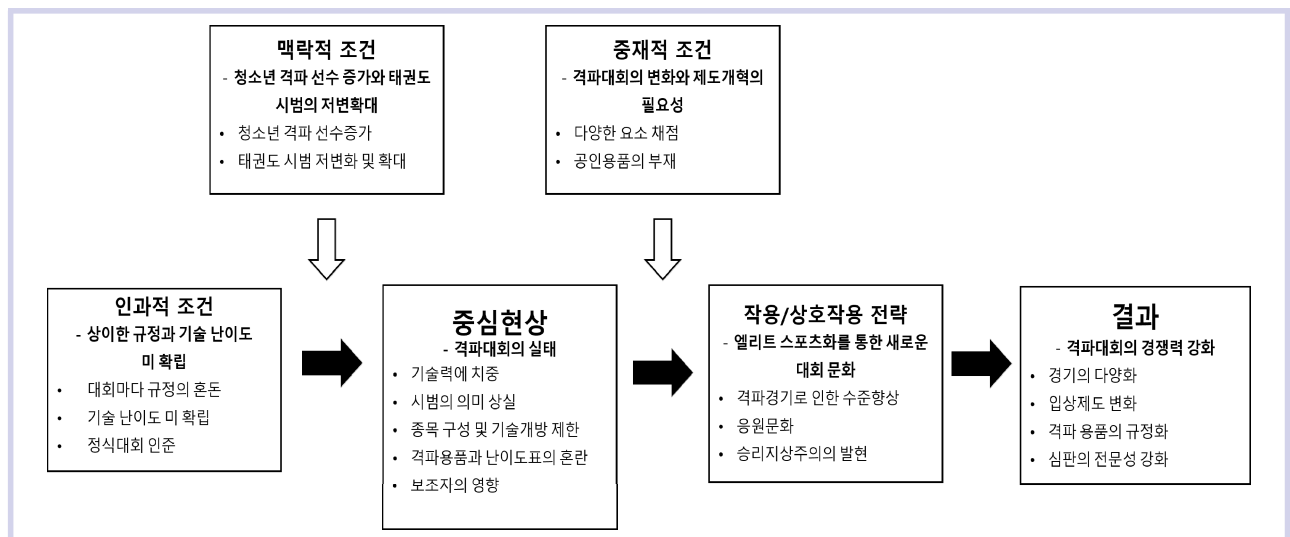


그림 1.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방안 패러다임 모형

‘격파대회의 실태’를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 방안의 중심 현상으로 도출하였다. 현 격파대회는 기술력 치중과 시범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고, 종목 구성 및 기술개방이 제한되어 있으며, 격파용품과 난이도표의 혼란, 보조자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 H(대학지도자): 현재 대표시범단을 봐도 격파대회 제공도약 1위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가위 5단계를 차보라고 해도 잘 하지 못해요.. 대회에서 가위차기는 3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정 종목으로 되어있으니깐 애들이 기계처럼 그것만 하다가 온 거예요..

참여자 C(심판): 사실 종합격파 1분도 필요 없지.. 기술 4개밖에 안하잖아? 예전 한마당 개인종합 생각해봐.. 1분 안에 15장 차야 되니깐 긴장감도 있고 스릴있고 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으면 지루..

참여자 O(격파선수): 시범은 단순히 격파만을 하는 것이 아닌데.. 현재 격파선수들을 보면 무조건 높고, 빠르게 격파해야 하니깐 시범이 가지는 맛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2) 인과적 조건

축코딩 패러다임에서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원인이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격파대회 실태의 중심현상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상이한 규정과 기술 난이도 미 확립, ’으로 나타났다.

대회마다 규정의 혼돈, 기술 난이도 미 확립, 정식대회 인준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조건이었다.

참여자 A(격파대회 운영팀): 인준 받기 전에는 대회마다 다르다 보니 대회 준비가 번거롭고, 헛갈렸지.. 예를 들어 한체대, 경희대, 용인대 총장기 대회 규정이 달라서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해.

참여자 F(태권도전공 교수): 720도 4단계랑 900도 1단계 중 뭐가 더 어려운걸까? 나는 900도 1단계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720도 4단계가 더 어려운거라고 하던데..

3) 맥락적 조건

축코딩 패러다임에서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환경과 상황을 나타낸다. 태권도 격파대회의 실태라는 중심현상의 맥락적 조건은 ‘청소년 격파 선수의 증가와 태권도 시범의 저변확대’로 파악되었다.

태권도 시범이 활성화됨으로 청소년 격파선수들이 증가

하고 또 시범활동을 통해 도장과 시범문화가 활성화되는 구조를 통해 격파대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 L(중·고교지도자): 2014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기부터 현재까지 격파대회를 출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일정이 너무 힘들어.. 그 만큼 팀도 많아지고 참가하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아졌다는거 아닐까?...

참여자 K(대학지도자):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겨루기는 5~600명, 품새는 약 1000명 정도의 참가자가 나오고... 격파대회 같은 경우 작년인가, 용인대 총장기 게임수가 3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4) 중재적 조건

축코딩 패러다임에서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통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상황적 요인이다. 이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격파대회의 변화와 제도개혁의 필요성’으로 파악되었다. 대회에서 채점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요소를 채점해야 함과 현

재 대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용품의 부재가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 M(중·고교지도자): 너무 기능적인 측면만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술과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서 평가했으면 합니다.

참여자 G(태권도전공 교수): 학생들이 정해진 발차기만 연습하잖아.. 대학 진학 후 기술의 다양성이 없어.. 기술의 폭과 다양한 요소를 채점해야 할거라 생각해..

참여자 Q(격파선수): 팀마다 다른 바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다보니 형평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겨루기, 품새처럼 공인용품으로 규정해야 해소될 부분 같아요..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축코딩 패러다임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에 반응으로 취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엘리트 스포츠화를 통한 새로운 대회문화’가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로는 격파경기로 인한 수준향상, 응원문화, 승리 지상주의 발현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M(중·고교지도자): 14년부터 22년도까지.. 격파

의 발전, 시범의 발전.. 우리가 원하던 발전이지만 지금 선수들을 보면 기계 같아.. 똑같은 기술, 똑같은 회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참여자 D(심판): 품새같은 경우 다른 코트에서 다른 팀의 경기가 진행될 때 응원을 자제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격파 경기에서 응원은 매우 열광적이고, 조직적이야..

6) 결과

축코딩 패러다임에서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전략들을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작용/상호작용을 나타낸 결과는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범주 안에 경기의 다양화, 입상제도 변화, 격파용품의 변별력 제시, 심판판정의 전문성 강화로 분석되었다.

참여자 B(격파대회 운영팀):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킹이 정식종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우리 격파대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5~7인조 단체경기나 기존 시범경연과는 다른 단체경기가 필요할거 같다.

참여자 E(태권도전공 교수): 올림픽 정신을 보면 ‘더 높게, 더 멀리, 더 빠르게’라는 정신인데 국제무대에 격파경기가 가려면 기록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연구의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교화 해 나가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개방코딩과 축코딩 패러다임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의 관계에서 태권도 격파대회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핵심범주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격파대회의 실태라는 중심현상과 코딩 패러다임의 관계들 속에서 ‘격파 경기의 다양화, 격파용품의 규정화, 입상제도의 변화, 심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격파대회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범주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 격파대회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전략으로 엘리트 스포츠화를 통한 새로운 시범문화 형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격파 경기의 다양화, 입상제도의 변화, 격파용

품의 변별력 제시, 심판의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2) 이야기 윤곽의 전개(Story Line)

이야기 윤곽(Story Line)은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와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관련성을 확인하여 기술하는 과정으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격파대회 주최 측마다 다른 규정으로 인해 대회 준비과정의 어려움과 혼란을 느꼈고, 모호한 난이도표 및 불확실한 난이도 평가로 인해 판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다.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 정식인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비공식 대회였던 격파대회가 2022년부터 정식대회로 전환되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으로부터 대학 총장배 대회까지 격파대회의 붐은 격파의 인기와 선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태권도 시범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스포츠화 된 격파대회에서는 기존 시범공연에서 보여주었던 예술적 측면은 소외되었고, 격파 기능에 치중된 형태로 발전하는 시범의 예술적 의미의 상실을 가져왔다. 또한 격파대회는 정형화된 규칙으로 박진감과 흥미가 떨어졌고, 착지매트 등 보조용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보조자의 도움을 통한 격파가 격파의 질을 떨어뜨렸다.

현재 격파대회의 종목은 체공 도약발차기, 수평·수직 축 회전 발차기, 종합격파, 총 네 종목으로 구성되어 각 종목별 평가를 시행한다. 종목 기술별 난이도표가 정립되어 있지만, 그 기능은 상실된 채 운영 중이다. 평가에 있어서 완파뿐만 아니라 기술 및 예술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나 결여되어 있고, 심판의 전문성 또한 부족하고, 송판, 격파 보조용품 등의 공인화가 되어있지 않다.

격파대회가 정식 인준됨에 따라 격파는 제도적으로 엘리트 스포츠화가 되었다. 그 결과 격파선수의 수준향상과 격파에 특화된 태권도인들이 배출되게 되었으며, 대회에서 새로운 응원문화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스포츠화 된 격파대회에 완파 안 된 송판 숨기기와 완파된 척하기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팀들도 생겨났다.

따라서 격파대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팀 경연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벤트성 경기, 기록경기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입상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랭킹포인트제를 도입하여 국가

대표 시범단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학 시범단의 랭킹을 가리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격파용품의 규정화로 대회의 공신력을 높여야 하며,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IV. 논 의

이 장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 요인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의 다양화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겨루기 경기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선정되었고, 품새 경기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을 거쳐 올림픽 정식종목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격파 경기가 올림픽 등 국제적 스포츠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수의 저변확대와 팬들의 증가가 필요하다. 브레이킹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선정되고, e-sports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선정되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스포츠의 관점이 아닌 선수와 열광적인 팬들의 증가로 대변되는 현대적 의미에서 스포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Park & Park, 2022). 이러한 관점에서 격파 경기는 국제대회 정식종목 선정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격파경기 종목인 채공도약격파, 회전(수평·수직)축 격파, 종합격파, 네 개의 종목으로는 부족하고, 경기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한다. 경기의 다양화를 위해서 격파 기록경기를 제안한다. 스포츠 결과관 어느 누가 봐도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기에(Ste-Marie, 2003),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격파 기록경기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듯 격파 경기의 다양화는 격파 기술 훈련, 코칭, 경기결과의 통계, 선수의 증가, 팬들(열광하는 지지층)의 증가로 이어져 격파 경기의 탄탄한 제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격파대회의 정식 인준 이후 대학부 개인전 경기가 중·고등부와 달리 참가자가 적어 미 성립 경기가 생겨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에 2022년 제20회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회장배 전국태권도대회에서는 대학부 격파 단체전이 신설되어 대학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국내 격파대회의 다양화 측면에서 대학총장배대회에 대학부와 일반부의 단체전이 신설된다면, 중, 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격파 선수의 단계적 성장과 기술발전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상제도의 변화이다. 현재 겨루기, 품새는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조건으로 해당연도 정식 인준대회의 입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마지막 검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 시범 및 격파에는 국가대표 급 시범단(국기원 시범단,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시범단, 세계연맹 시범단)은 격파대회 정식 인준대회와 무관하게 각 단체별 별도의 자격 없이 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가 되는 상황이다. 격파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대표 시범단 선발전 자격을 해당연도 입상자로 규정해 놓는다면 청소년은 물론 대학부, 일반부까지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격파용품의 규정화이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격파대회 경기규칙에 명시된 송판 규정은 '격파물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Korea Taekwondo Association, 2023)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격파대회에 사용되는 0.9mm 송판은 명확한 변별력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소 두께가 얇고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송판의 강도 또한 일정하지 않다. 이에 부분별 송판의 두께와 강도를 달리하거나 전자호구처럼 '전자 판미트'로 강도를 수치화한다면 변별력 제시와 경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겨루기 종목의 다양한 공인용품(Korea Taekwondo Association, 2023)과 달리 격파 종목의 공인용품은 공인도복과 송판뿐이며, 대회에서 공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기용품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비읍자(비)는 송판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비공인 용품이다. 이는 격파자의 정확한 격파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격파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이에 격파용품을 제한·공인하여 오롯이 개인의 경기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심판의 전문성 강화이다. 격파대회가 정식대회로 인준되기 이전에 심판판정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Lee, Lee & Kim, 2019). 2022년 격파대회가 대한태권도협회의 정식대회로 인준됨으로 심판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의 2022년 정식인준 이후에도 격파대회에서 심판판정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는 실정이다(Bang, Jang, 202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격파 심판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세분화·전문화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권도 겨루기, 품새 심판 자격제도는 국내 심판 1~3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격파 심판 자격제도는 3급 하나로

구분되어 있다(Lee, 2023). 이는 심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격파 심판 자격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세분화하여 1~3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심판에 대한 보수교육 일정이 없고 각 대회 하루 전, 경기 당일에 심판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기적인 심판 보수교육을 통해 격파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축구, 야구, 펜싱 겨루기 등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객관화되지 못한 판정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 심판기와 비디오판독 도입이 시행되고 있다(Kim, 2016). 이에 격파대회에서도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비디오판독(VAR)을 도입하였다. 격파대회의 비디오판독 도입으로 인해 심판에 대한 신뢰회복 및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하지만, 비디오판독으로 인해 경기시간이 지연되고 있다(Lee, 2023). 또한 겨루기, 품새 종목은 지도자·선수의 의의제기로 비디오판독을 실시하는 반면에, 격파 종목에서는 의의제기 없이도 1번 심판이 매 경기마다 비디오판독을 할 수 있어 경기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디오판독 전문심판을 양성하여 격파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태권도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격파대회 운영팀, 심판, 태권도전공 교수, 대학 및 중·고 지도자, 국가대표 시범단 등 총 16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으로 이뤄졌고,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51개의 개념과 1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이를 통합한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격파대회의 실태’를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 방안의 중심현상으로 도출하였다. 하위범주로는 기술력 치중, 시범의 의미 상실, 종목 구성 및 기술개방 제한, 격파용품과 난이도표 혼란, 보조자의 영향이 도출되었다. 격파대회 실태의 중심현상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상이한 규정과 기술 난이도 미확립’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로는 대회마다 규정의 혼돈, 기술 난이도 미확립, 정식대회 인준이 도출되었다. 맥락적 조건은

‘청소년 격파 선수의 증가와 태권도 시범의 저변확대’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로는 청소년 격파 선수증가, 태권도 시범 저변화 및 확대가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엘리트 스포츠화를 통한 새로운 대회문화’가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로는 격파경기로 인한 수준향상, 응원문화, 승리지상주의의 발현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범주 안에 경기의 다양화, 입상제도 변화, 격파용품의 규정화, 심판의 전문성 강화로 분석되었다.

선택코딩 단계에서 태권도 격파대회의 실태라는 중심현상과 코딩 패러다임의 관계들 속에서 ‘격파 경기의 다양화, 격파용품의 규정화, 입상제도의 변화, 심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격파대회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범주로 도출하였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요인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요인으로 첫째, 경기의 다양화를 위하여 기록경기과 대회총장배대회에 대학·일반부의 단체전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격파경기에서 필요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와 선수의 단계적 성장 및 기술발전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상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겨루기, 품새는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조건으로 해당연도 전국대회 입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대표 급 시범단(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은 전국대회와 무관하게 선발전을 치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대표 시범단 선발 시에도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격파용품의 규정화가 요구된다. 격파대회에서 사용되는 송판은 다소 얇고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에 변별력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 판미트’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심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2022년 정식대회로 인준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아쉬움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판자격 제도를 개선 및 세분화·전문화 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디오판독(VAR) 제도는 경기시간 지연의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겨루기, 품새와 같이 지도자·선수의 의의제기가 있을 시 비디오판독을 실시해야 하며, 비디오판독 전문심판을 양성하여 원활한 진행과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태권도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인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격파대회의 탄탄한 제도화

의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격파대회가 국내대회를 넘어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하는데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도출하고 논의한 격파대회 경쟁력 강화방안인 경기의 다양화, 입상제도, 격파용품의 규정화, 심판 전문성 강화의 각각 요인에 대해 심층적인 단일사례 연구(single-case study)를 제안한다. 둘째, 엘리트 스포츠화 된 격파경기에서 승리지상주의에 따라 다양한 꼼수(송판 숨기기, 완파 된 척하기 등)가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격파 선수들의 비규범적 행위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Bang, I. J., & AN G. A. (2022). A Study on Problems with and Improvement of Judgments over the Complete Smash of a Pine Board in Taekwondo Smash Competitions. *Korean journal of sports*, 20(3), 771-779.
- Bae, J. S. (2022). Derivation of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rough Grounded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1(6), 529-542.
- Byun, K. Y. (2020). Grounded theory approac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create a site-based theory. Seoul: Hakjisa.
- Cha, Y. N., Kim, J. S., & S, H. C. (2020). The Influence of Imagery Ability on Competition State Anxiety and Sports Confidence in Taekwondo Technical Breaking Competition Players of Youth.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22(3), 3-11.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Guba, E., & Lincoln, Y.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Lee, G. W., Lee, Y. J., & Kim, K. N. (2019). Thesis on Problem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Taekwondo Demonstration Competition Sponsored by Presidents of Universitie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0(2), 43-61.
- Bang, I. J., & Jang, K. (2022). Exploring the Improvement of Taekwondo breaking event. *Sport Science*, 40(3), 257-265.
- Jung, J. Y., & Kim, Y. K. (2015). Kinematic Comparisons between Single and Double Back Somersault Kicks in Taekwondo.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6(2), 155-172.
- Kim, D. K. (2016).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referees and video judging systems for fair sports competitions. *Sports Entertainment and Law*, 19(3), 45-62.
- Kim, Y. J. (2018).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aekwondo Demonstration Compet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orea Taekwondo Association(2023). 2023 Game rules. <https://www.koreataekwondo.co.kr/ebook/2023/s/index.html?reload=1675306986775>.
- Lee, B. S. (202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Activation Plans of Taekwondo Breaking (Demonstration) Competition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 Lee, S. S. (2022). Characterization of Taekwondo Demonstration according to Cultural Change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 Lee, Y. J., Jeon, M. W., & Jung, J. H. (2019). A basic research to improve the evaluation method of taekwondo demonstration competit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tudies*, 17(4), 1031-1038.
- Park, D. Y., & Ban, E. A. (2020). Perceptions of Judges on Scoring Criteria of Breaking in Taekwondo Demonstration Contests - Focusing on the Demonstration Part of the 2019 Contest Held by Taekwondowon -. *Journal of Martial Arts*, 14(3), 103-123.
- Park, S. W. (2021). Leaders' Perceptions of Taekwondo Urban Program Education in Ikpawi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Korea University of Sport.
- Park, H. S., & Park, S. J. (2022). A Critical Review of Breaking as an Olympic Spor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1(3), 117-128.
- Park, T. W., & Lee, J. S. (2021). Qualitative Approach for the Improvement of Data Utilization i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Fiel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0(3), 133-148.
- Ste-Marie, D. (2003). Expertise in sport judges and referees. Expert performance in sports. *Advances in research on sport expertise*, 169-189.
- Shin, H. C., & Lee, S. K. (2015). A Study on Revitalization Plan for Breaking Game through Analysis of Taekwondo Breaking Game Rule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6(1), 157-178.
- Shin, H. C., Kim, J. Soo., & Cha, Y. N. (2021). The Effect of Self-Management of High School Student Taekwondo Technical Breaking Athletes on Exercise Continuity and Performance Strategy.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23(1), 73-82.
- Strauss and Corbin(1998). Basic of Quali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 Yang, G., Kang, G. H., & Jeon, I. K. (2010). Advertisement Exposure Effect Analysis of Taekwondo King of Breaking Competition Title Sponsorship.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5(6), 15-27.

Using Grounded Theory to Identify Ways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aekwondo Breaking Competitions

Lee, Beob-Sun¹ · Bing, Won-Chul²

1.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2.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phenomena related to Taekwondo breaking competitions and ways to enhance competitiveness by applying grounded theory.

Method Sixteen professors of taekwondo majors and participants of breaking competitions were selected to collect data.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proposed by Strauss & Corbin (1998).

Results First, in the open coding phase, 51 concepts, 19 subcategories, and 6 integrated categories were derived through continuous questioning and comparative analysis. Second, the axial coding stage presented causal, contextual, and mediating conditions,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and outcomes centered on the central phenomenon. Third, in the selective coding stage, we identified the core categories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breaking competitions by diversifying the breaking game, regulating breaking equipment, changing the prize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referees" and presented the narrative outline.

Conclus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breaking competition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breaking competitions and suggesting various factors for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breaking competitions.

Keywords Breaking Competition, Grounded Theory, Competitiveness Enhancement

논문투고일: 2023.11.01.

논문심사일: 2023.11.29.

심사완료일: 2023.12.19.

논문발간일: 2023.12.30.